

한경 BUSINESS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집값 급등 지방 부동산 투자 전략
연금저축 절세 포인트 올가이드
경매의 핵심 '소유권 인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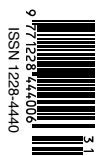
앱 비즈니스 빅히트의 법칙

한국의 중년들이 열광하는 것들

흐돈에 빠진 주식 투자자 살려낼 구세주는
패션 사업 나선 배우 공현주의 'CEO 성적표'
시장점유율 '뚝뚝' 피폰에 무슨 일이



값 3,500원



한국경제신문

러시아 고위 관료의 공기업 임원 겸직 금지

현직 관료들 퇴진... 시장 개방에 긍정적

이승민 법무법인 지평지성 러시아 변호사

원근 경제신문



러시아 고위 관료들이 기업 경영에 대거 손을 댔으나 전직 관료들의 기업행은 여전히 많다. 사진은 가스프롬 본사.

한국에서 정부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 업무와 관련 있던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에 '특혜'로 취업하는 관행에 비판이 일고 있는 반면 러시아에서는 현직 관료들의 민간 기업 경영 참여가 최근 들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러시아연방 공직에 관한 연방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 은 원칙적으로 일반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연방 총리령에 따라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최고이사결정기구 내 겸직은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가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의 부총리와 장관들이 정부 지분 보유 회사의 주요 보직을 겸직해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들 기업들을 경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2월부터 통합항공기제작공사(OAK) 이사회 이사로 세르게이 이바노프 당시 제1부총리가 추천됐고 러시아 국영 철도 회사 이사회에는 알렉산드르 주코프 부총리, 대외무역은행(VTB)의 감사위원에 알렉세이 쿠드린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이 참여하게 됐다.

고위 공무원들이 정부 지분 소유의 기업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경제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정부 관료들의 개입으로 투자 의사 결

정이 왜곡되는 한편 정부와 민간 기업의 밀착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이 저해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월 투자환경개선위원회 회의에서 "7월까지 공기업 이사회에서 모든 부총리 및 장관들이 이사직에서 퇴직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현직 연방 공무원들의 겸직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라 7월까지 17개의 러시아 공기업 이사회에서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전격 퇴직했다.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보면 알렉세이 쿠드린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대외무역은행), 이고르 세친 부총리(로스네프치 및 통합전력공사), 빅토르 주코프 제1부총리(농업은행), 세르게이 슈마르코 에너지부 장관(가스프롬), 엘비라 나비올리나 경제개발부 장관(가스프롬), 이고르 레비친 교통부 장관(아에로플로트), 이고르 세골레프 통신대중매체부 장관(스바지인베스트) 등이다.

전직 관료들의 기업행은 변함없어

고위 관료들이 기업의 이사회에서 퇴직했다는 사실은 러시아 기업 문화에 신선한 의미를 던져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시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정치적 시도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여전히 공기업 고위 임원 자리를 연방 정부 전직 장관과 대통령 행정실 출신 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직 관료'에서 '전직 관료'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이 러시아를 더욱 개방시키고 내·외국인에게 우호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도 러시아 비즈니스를 추진할 때 이른바 '정부 내 관료 라인'에만 의존해 사업을 수행하기보다 러시아 현지의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를 인식하고, 좀 더 러시아의 비즈니스 관행과 제도를 이해하며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